

일본의 다카시마 산지

- 모든 연사 설비 갖추고 차별화 실 개발을 돕고 싶다.

시가현(滋賀縣)에 있는 비와 다카시마(琵琶 高島) 산지는 연사(撚絲) 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서, ‘다카시마 크레이프(高島 crepe)’의 원점이기도 하다. 의류 소재용 뿐 아니라 자재용 직물로서도 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연사업(撚絲業)도 지금은 불황으로 고생하고 있다. 일본 텍스타일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연사를 어떻게 계속 살리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 꿈의 텍스타일을 만드는데에 링크시킬 수 있느냐가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시가현 연사 공업 조합(滋賀縣 撚絲 工業 組合) 이사장으로부터 산지 내에 있는 연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전망을 들었다.

원래 다카시마 산지의 연사 업자들은 농업에서 연사업으로 전업한 사람이 많다. 당초에는 습식 가연(濕式 加撚 : water/wet twisting) 방식으로 출발하였는데, 효율이나 생산성이 좋지 않아서 현재의 건식 연사(乾式 撚絲 : dry twisting)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1960년대부터 급피치(急pitch)로 설비가 늘어났다. 시설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서서히 증가하는 산지내의 주문 외에 산지 밖으로부터의 수주가 늘어, 현재는 산지내 수주가 약 30%, 다른 산지로부터의 수주가 약 70%로 되어 있다. 연사업이 피크이었을 때의 업자수와 현상을 비교해 보면, 피크이었을 때는 약 650개 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약 100개사 정도이다. 조합원이 아닌 공장도 약 50개 있는데 대부분은 영세(零細)하여 생산량에서의 비중은 극히 적을 것이다.

현재 산지 내에서의 연사 가공은 천연 섬유인 면, 마, 울을 비롯하여 화학 장섬유와 단 섬유뿐만 아니라 각종 복합 섬유의 연사 가공이 있다. 머리털 정도로 가는 실에서부터 로프와 같이 굵은 실이나 줄까지 가공하고 있다. 용도는 ‘다카시마 크레이프 인테리어용(高島 crepe interior用), 산업 자재용(産業 資材用), 로프용(rope用), 어망용(漁網用), 인공 잔디용(人工 芝用), 니트용(knit用) 등’과 같이 다종다양하다.

필라멘트로부터 스펀까지, 태(太)번수로부터 극세(極細)번수까지 연사 가공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자신을 갖고 있다.

연사 업계도 2008년의 세계 동시 불황 이후로 조업도(操業渡)가 많이 떨어졌다. 얼마 전에 일본 연사 공업 조합 연합회(日本 撚絲 工業 組合 聯合會)에서 조사한 각 산지의 연사 업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전국적인 가동률은 30 ~ 40%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카시마 산지는 대체로 가동률이 60% 정도인데 업자에 따라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크다.

연사 업자의 채산성에 대하여는, 조합 이사장 공장의 경우 설비는 쓰다코마제(津田駒製) 이탈리아식 연사기 912추가 있으며, 주로 니트 용도로서 80수 단사, 80수 이합 연사, 60수 단사, 60수 이합 연사를 가공하고 있으며, 옵션으로 가스 소모(gas 燒毛 : gas singeing)나 왁스 가공 등을 하고 있다. 채산 면으로는 한사람 당 생산성 부가 가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경영의 가늠자로 잡고 있다.

다카시마 산지의 강점이라면, 산지 연사 업자들이 어떤 발주자의 주문일지라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비도 업 트위스터(up twister), 이태리식 트위스터, 더블 트위스터 등 연사에 관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연사 업자끼리는 ‘이웃 간의 협업(collaboration), 이웃 간의 도급(都給) 나누기’가 매우 스피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로트 시험 연사나 벌크 가공으로부터 50톤 이상 클래스의 수주까지 다룰 수 있는 융통성과 협조가 자연스럽게 잘 갖추어져 있다.

연사는 원래 수주 산업이며, 직물업자, 콘버터, 방적, 이너웨어 메이커(inner-wear maker)로부터의 발주를 확실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생산 스페이스(生産 space)를 다 채울 수 없다. 유저(user)와 함께 새로운 실을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조합 운영에 대하여는 먼저 조합원에게 어느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냐에 초점을 맞추고 또 조합 사무국의 일부를 살롱(salon)처럼 만들어,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편히 쉬고 정보를 다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